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영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그 말 뒤에 어떤 조사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TOP'처럼 쓰이는 말을 '톱'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티오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조사는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안성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답》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은', '-이', '-을'을 붙이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는', '-가', '-를'을 붙입니다. 이에 따라 'TOP'을 '톱'과 같이 쓸 때에는 '톱은/톱이/톱을'과 같이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는 '-은, -이, -을'을 붙이고, '티오피'와 같이 쓸 때는 '티오피는/티오피가/티오피를'과 같이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는 '-는, -가, -를'을 붙입니다.

물음》 하기 쉬운 것을 말할 때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누워서 떡을 먹는 행위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왜 쉬운 일에 비유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은우,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답》 ‘떡’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관용구나 속담이 많은데, 그중에 ‘예사로 쉽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 ‘떡 먹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눅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속담을 살펴보면, ‘누워서 (무엇을 하다)’와 같은 표현이 ‘편하다/힘들지 않다/쉽다’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누워서 떡 먹기’는 이러한 ‘떡 먹듯’의 뜻, ‘누워서 무엇을 하다.’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는 ‘떡 먹다’와 ‘눅다’가 쓰인, 아래의 관용구와 속담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ㄱ. 누워서 떡 먹기(=누운 소 타기)

-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 떡 먹듯

- 예사로 쉽게.

ㄷ. 누워서 떡을 먹으면 팔고물이 눈에 들어간다.

- 자기 몸 편할 도리만 차려서 일을 하면 도리어 제게 해로움이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ㄹ. 누운 소 똥 누듯 한다.

- 무슨 일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음》 수업 시간에 손뚝과 발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손’과 ‘발’은 알겠는데, ‘뚝’은 무엇인가요? ‘손뚝’과 ‘발뚝’이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알고 싶어요.

(김지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답》 ‘손뚝’, ‘발뚝’은 명사인 ‘손’, ‘발’과 손뚝과 발뚝을 통틀어 이르던 명사 ‘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15세기부터 ‘손뚝’, ‘발뚝’과 같은 어형이 쓰였음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뚝’은 ‘손’과 ‘뚝’이, ‘발뚝’은 ‘발’과 ‘뚝’이 결합한 어형으로, ‘손’은 ‘手’, ‘발’은 ‘足’의 뜻이며, ‘뚝’은 옛말에서는 그 자체로 ‘손뚝’과 ‘발뚝’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뚝’이 지금은 ‘손’과 ‘발’을 선행한 ‘손뚝’, ‘발뚝’의 합성어의 후행 요소로만 쓰이지만, 옛말에서는 ‘뚝’만으로도 ‘손뚝’과 ‘발뚝’을 뜻하였습니다. ‘손뚝’, ‘발뚝’의 ‘손’, ‘발’은 잉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뚝’ 가운데 특별히 손가락 끝에 있는 각질을 가리키기 위해 ‘손’을 덧붙여 ‘손뚝’과 같이 쓰고, 발가락 끝에 있는 각질을 가리키기 위해 ‘발’을 덧붙여 ‘발뚝’과 같이 쓴 것입니다.

‘손뚝’, ‘발뚝’의 ‘뚝’은 ‘슌뚝’, ‘발뚝’과 같이 쓰였던 ‘뚝’이 거센소리로 변한 어형인데, ‘뚝(뚝<뚝)’은 ‘뚝대어 덮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 따위를 엮어서 씌우다.’를 뜻하는 ‘덮다’나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를 뜻하는 ‘돕다’와 근원이 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물음>> “~이/가 ~고 싶다.”에서 ‘이/가’는 ‘을/를’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럼 이때의 ‘이/가’는 주격 조사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김정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답>> ‘이/가’는 다음 문장 (1)(2)에서 보듯이 이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선생님, 철수’가 문장의 주어가 됨을 표시하는 구실을 합니다.

- (1) 선생님이 어제 맞춤법을 가르쳐 주셨다.
- (2) 철수가 어제 달리기에서 1등을 차지했다.

국어의 문장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이/가’가 결합해서 쓰이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 ‘을/를’이 쓰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3) (나는) 오늘 오랜만에 떡이 먹고 싶다.
- (3)' (나는) 오늘 오랜만에 떡을 먹고 싶다.
- (4) 좀 싸늘하니 (나는) 따뜻한 우유가 마시고 싶다.
- (4)' 좀 싸늘하니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싶다.

(1)(2)의 문장에서 ‘선생님이’와 ‘철수가’를 각각 ‘선생님을’과 ‘철수를’로 바꾸면 이들 문장은 모두 비문이 되고 맙니다. 이에 비해서 (3)(4)에서 ‘먹고/마시고 싶다’와 결합한 ‘이/가’는 (3)' (4)'와 같이 ‘을/를’로 바꾸어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을/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이/가’는 형태상으로는 주격 조사 ‘이/가’와 동일한 것이지만, 이때 ‘이/가’는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서(예: 나는 오늘 수영장이

가고 싶다.)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가’는 격조사가 아니며,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의 본동사로 쓰인 ‘먹다, 마시다’의 목적어인 ‘떡, 우유’를 지정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므로 ‘떡을, 우유를’과 같이 목적격 조사를 결합한 형태로 바꾸어 보아도 어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3)(4)와 같이 주어 ‘나는’을 드러낸 경우에도 이들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통해서도 ‘-고 싶다’에 쓰인 ‘떡이’와 ‘우유가’의 ‘이/가’는 주격 조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음>> ‘계, 떼, 폐, 혜’ 등의 ‘κει’는 [키]로 발음할 수 있다는 데, 왜 ‘예, 례’의 ‘κει’만은 [키]로 발음할 수 없나요?

(서지영,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답>>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2에 따르면 ‘κει’는 ‘계집[계 : 집/계 : 집], 계시다[계 : 시다/계 : 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 택/혜 : 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와 같이 발음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음 이외에 [키]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례’의 경우는 오로지 [키]로만 발음하도록 하여 차이를 보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8항에 따르면 사례(謝禮)가 [사례]로 소리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례’로 적도록 한다는 말이 실려 있는데, 이를 보면 반드시 ‘례’가 [례]로만 소리 나는 것은 아니고 [례]로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례’를 [례]로만 발음하도록 표준 발음을 정한 것은, 같은 한자음을 어두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예’로 적으면서, 비어두에서는 ‘례’로 적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이때의 ‘례’를 분명히 [례]로 발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생각하여 보면,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두음 법칙 표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례’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예’로 표기되는 것이므로 ‘례’로 분명히 발음되어야 두음 법칙이 적용된 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례(謝禮)’의 ‘禮’가 어두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예의(禮儀), 예식(禮式), 예법(禮法)’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두에서 ‘예’로 분명히 발음되고 표기가 될 때에, 두음 법칙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 본음이 ‘례’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비어두에서 ‘례’를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禮’의 발음을 [례]로 읽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될 환경에서 ‘예’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네’로 발음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 ‘례’의 모음 ‘례’를 본래의 소리대로 발음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이 **두음 법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음》 ‘된다’와 ‘뉘다’ 중 무엇이 맞습니까?

또 ‘해야 되’와 ‘해야 돼’ 중에는 무엇이 맞는 표기입니까?

‘되’와 ‘돼’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답》 문의하신 표현은 각각 ‘된다’, ‘해야 돼’로 표기함이 바릅니다. 이는 동사 ‘되다’의 어간 ‘되-’에 각각 어미 ‘-는다’, ‘-어’를 결합한 형태인

데, 전자는 '되-+-ㄴ다'의 결합으로 '된다'가 되고, 후자는 '되-+-어'의 결합으로 '되어'가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돼'로 줄어진 것입니다.

우리말의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지는데, 어간 뒤에는 어미가 결합해야 문장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 ㄱ. 나는 지금 밥 먹어.

ㄴ. 뭐가 그리 좋아?

ㄷ. 여기 와서 앉아.

ㄹ. 우리 함께 읽어.

위의 예문에서 보신 것처럼 '먹다/좋다/앉다/읽다'를 문장 안에서,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뜻의 종결형으로 쓸 때는 어미 '-아/-어'를 결합하는데, 어간 '먹-, 좋-, 앉-, 읽-'에 붙이면 각각 '먹+어, 좋+아, 앉+아, 읽+어'가 됩니다. 이 어미 '-아' 또는 '-어'는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예문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종결 어미를 빼고 어간만 쓴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1)' ㄱ. *나는 지금 밥 면.

ㄴ. *뭐가 그리 좋?

ㄷ. *여기 와서 앉.

ㄹ. *우리 함께 읽.

(1)' 예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미 없이 어간만 써서는 문장 속에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동사 '되다'에도 어미를 결합해서 쓰게 되는데,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들을 붙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 되--고 → 되고
 되--니 → 되니
 되--지 → 되지
 되--ㄴ다 → 된다

- (3) 되--어 → 되어 → 돼
 되--어서 → 되어서 → 돼서
 되--었--다 → 되었다 → 됐다

위 예에서 보신 것처럼 ‘돼-’로 쓰는 것은 ‘되어’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되어’로 풀 수 있으면 ‘돼’로 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된다’, ‘돼’에서, ‘된다’는 ‘*되언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웬다’로 쓸 수 없지만, ‘돼’는 ‘되어’가 성립하므로 ‘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없이 어간만 쓸 수는 없으므로 ‘해야 돼’를 ‘*해야 되’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 (4) ㄱ. 되--ㄴ다 → 된다(예) 그 일은 내가 하면 된다.
 ㄴ. 되--어 → 되어 → 돼(예)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물음》 저는 동물 분야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청설모(靑鼠毛)’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다람쥐가 아니라 ‘참다람쥐나 날다람쥐의 털’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청서(靑鼠)’도 ‘날다람쥐’와 같은 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서울 송파구 잠실 4동)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시에 ‘청설모(靑鼠毛)’의 의미에 ‘청서(靑鼠)’의 의미가 추가되었으며, 날다람쥐의 의미에서는 ‘청서(靑鼠)’의 의미가 삭제되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전에는 ‘청설모(靑鼠毛)’가 ‘다람쥐나 날다람쥐의 털’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모(靑毛)’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시에 ‘청설모(靑鼠毛)’가 ‘청서(靑鼠)’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설모(靑鼠毛)’의 첫 번째 뜻으로 ‘청서(靑鼠)’를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청설모의 원래의 뜻이었던 ‘참다람쥐나 날다람쥐의 털’은 그대로 두어, 두 번째 의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후 ‘청설모(靑鼠毛)’와 ‘청서(靑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설-모(靑鼠▽毛)

「명사」

「1」 동물 = 청서02(靑鼠).

「2」 참다람쥐나 날다람쥐의 털. 붓을 만드는 데 많이 쓴다.

≡ 청모01(靑毛).

청서02(靑鼠)

「명사」 동물』

다람쥐과의 하나. 몸빛은 잿빛 갈색이며 네 다리와 귀의 긴 털은 검은색이다. 종자, 과일, 나뭇잎 따위를 먹고 가을에는 땅속에 먹이를 저장한다. 임신 기간은 35일이며 한 배에 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한국, 시베리아, 유럽,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청설모 「1」. (Sciurus vulgaris coreae)

그리고 ‘날다람쥐’의 경우 개정 전에는 ‘다람쥐과의 날다람쥐, 북미날다람쥐, 큰날다람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첫 번째 뜻으로 ‘청서(靑鼠)’와 같은 말로 두 번째 뜻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날다람쥐의 첫 번째 뜻은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비유적인 의미 하나가 두 번째 뜻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즉, 날다람쥐가 청서와 같은 의미로 쓰이던 내용이 삭제되고, ‘움직임이 매우 민첩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추가된 것입니다. 개정 후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다람쥐[-따--]

「명사」

「1」 동물□다람쥐과의 날다람쥐, 북미날다람쥐, 큰날다람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움직임이 매우 민첩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시 정리를 하여 말씀드리자면,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시에 ‘청설모(靑鼠毛)’의 의미에 ‘청서(靑鼠)’의 의미가 추가되었으며, ‘날다람쥐’의 의미에서 ‘청서(靑鼠)’의 의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서(靑鼠)’의 의미로 적고자 하실 때에는 ‘날다람쥐’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다 보면 표제어나 뜻풀이에 여러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 표시와 ‘^’ 표시는 어떻게 띄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뜻풀이에 나와 있는 화살표는 무슨 의미입니까?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을 구입하고 싶은데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김형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답》 2008년 10월에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정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웹 사전**으로 나왔으므로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조건을 다양화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웹 사전으로 개정되고 나서 사전과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수근거리다’를 검색하면 뜻풀이 부분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은 ‘수근거리다’는 비표준어이고 ‘수근거리다’는 표준어라는 의미입니다. 수근거리다의 뜻풀이를 참고하라는 약호로 볼 수 있습니다. 비표준어에 대해 1999년도에 나온 초판에서는 ‘수근거리다’의 잘못으로 제시하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화살표로 바꿔 제시한 것입니다.

수근-거리다 「동사」 → 수근거리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다가 뜻풀이만 나오고 풍부한 용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찾고 있는 의미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 조건을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 표제어를 한 번 더 누르면 ‘결과’ 화면에 제시되지 않던 뜻풀이와 용례가 제시되므로 다양한 용례를 참고할 수 있

습니다.

‘^’ 표시는 좌우의 단위를 서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의 띄어 쓰기를 표기할 때 쓰입니다. 아래의 ‘교육^과정’은 ‘교육 과정’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과정’으로 붙일 수 있고 ‘교과 과정’과 동의어라는 뜻으로 ‘=’ 표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과정의 뜻 풀이에 나온 ‘≡’ 표시도 뒤에 있는 단어가 표제어와 동의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과정(教育課程) 『교육』 =교과 과정.

교과^과정(教科課程) 『교육』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 ≡교육 과정·커리큘럼

‘-’ 표시는 한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붙여 씁니다. ‘-’ 표시는 복합어의 최종 분석 단위 경계 표시로 크리스마스이브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Christmas Eve) 「명사」

크리스마스의 전날 저녁. 12월 24일 저녁을 이른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판 웹 사전 ‘찾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일러두기의 사전에 쓰인 기호 및 약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러한 띄어쓰기 이외에도 발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음 듣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뜻풀이뿐만 아니라 표기에 필요한 활용 정보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